



우리의 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 斗 燮
編輯人：沈 載 烈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 賣 品 1996. 1. 3 登 錄 番 號 書 爾 拉 - 549 號

홈페이지 | www.csshim.or.kr

13世祖 贈大司憲 行 應教公(휘:東龜) 墓碣銘 - ③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 8

『너는 이미 조정에 적을 두었던 바 반드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여 정성껏 받들면 거의 하늘이 감회할 것이다.』

이에 모든 사람이 눈물을 줄줄 흘렸다. 공은 집을 잇는 미덕과 나라를 빛낼 재주로서 우뚝하게 조속하여 아버지를 모실 때는 한 번도 게으르지 않았고 좋은 얼굴과 즐거운 말씀으로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 반드시 밝은 얼굴로서 아버지가 좋아하면 주식을 장만하여 힘써 즐겁게 하였다. 仁祖 초년에는 모든 어진 이들이 봉새와 봉새 같이 감싸줘서 공이 마음껏 펼치고 화려하게 드날려서 공론이 소중하게 여겼다. 좋고 나쁜 것엔 자기대로 치우치지 않고 시비를 가리는데 친소에 가담하지 않았다. 공무를 수행할 때는 정확을 기하고 곧고 굳어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을 대할 때는 반드시 곧는데 바탕을 두고 벼를 가릴 때는 허식을

싫어하니 친구들이 그 지조를 숭상하되 꺼리는 이도 많았다.

김반(金槃)에게 庶弟가 있었는데 망언을 저질러 조정에서 죄인으로 다스려서 일이 난처하게 되었으니 한편에서는 그 부형에게 죄를 얹고자 논의하니 공이 그 주장하는 자에게 바로 꾸짖어 말하기를 이 같은 말을 하는 자는 결코 정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그 사람이 몹시 성내었으나 일은 끝나고 말았다. 이계(李桂)가 그 친구를 위하여 공에게 추천하는 바 늘 그 말이 심술궂고 간사하여 반드시 나라를 흥하게 할 듯하여 들은 이가 송연 하였는데 그 뒤 과연 이계가 오랑캐에 붙어 매국노로 죽음을 당하니 사람들이 비로소 공의 밝은 견해에 감복하였다. 공이 평소 역사책 읽기를 좋아하고 국가 흥망과 현사(賢邪)의 동향에 즈음하여 정확한 의논을 세우고 세 번씩 극진히 생각하

지 않을 때가 없었다.

공은 용산 강변에서 많이 살았고 흑 검양 별장에도 있었는데 물을 끌어서 연못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수림을 만들어서 한가롭게 거닐고 즐겁게 세상일을 잊기도 하였으니 그 가운데는 반드시 고인의 정취가 있어서 유연히 아는 이도 있으나 보통은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 공은 詩 가운데 당시를 가장 좋아하고 두보(杜甫) 같은 선배를 으뜸으로 칭하였다. 천재로써 심히 고상하고 음울로써 스스로 잘 어울렸으니 비록 전문적인 소인묵객(騷人墨客)¹⁷⁾ 일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였다고 하며 문집 몇권이 있어서 세상에 전하고 있다.

공의 부인 淑人 경주 김씨는 증영의정 수렴(守濂)의 딸이며 좌의정 명원(命元)의 손녀이다. 어질고 효도하고 단정하고 공경함은 천품에서 나온 것이다. 그 조고모 안부인께서 늘 이 손부는 진정코 우리 집 종사를 이을 것이라고 말 하였다. 甲寅년 겨울에 예론(禮論)이 일어났는데 둘째 아들이 간관(諫官)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그 사유를 아뢰니 어머니이신 숙인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대간(臺諫)으로 있으니 화복(禍福)¹⁸⁾으로 인하여 그 직위를 그만두거나 자리를 지켜서는 아니 된다.』 경신 4월에 86세로 생애를 마치자 그 6월에 선영에 움막을 지었으니 술인(術人)의 말에 따른 것이다. 아들 넷을 두었는데 맏아들 창(敞)은 먼저 죽고 둘째 아들이 유(攸)이니 일찍이 사간이 되었고 셋째 아들이 철(徹), 넷째 아들이 경(敬)인데 다들 음사(蔭仕)이다. 사간이 한주(漢柱) 한장(漢章) 한서(漢瑞) 한규(漢規)를 낳으니 맏아들이 진사이고 둘째 아들

이 맏집으로 出後하고 세 딸은 이홍정(李弘廷) 정도진(鄭道晋) 이세정(李世禎)과 각각 결혼하고, 한웅(漢雄)과 한필(漢弼)과 황명석(黃命錫)의 처가 된 딸은 끝 집 소생이다. 그리고 내외손과 증손 약간 명이 있었다.

공이 죽은 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와 참찬 송준길(宋浚吉) 대사간 조복양(趙復陽) 등이 다시 공의 원통했던 정상을 아뢰어 현종께서 특별히 복권토록 하니 일가 노소가 서로 모여 울었으나 판서공은 아직 풀리지 않아서 공경(公卿)²⁰⁾에 있는 분들이 다시 간청을 하였으나 허허를 받지 못하고 숙조²¹⁾ 辛酉년에 내가 공의 아픔을 대략 진술하고 아버지의 원한을 풀지 못하고 죽을 때 눈을 감지 못했다고 하니 임금께서 대신들에게 물으셨다. 영의정 김수항(金壽恒)과 좌의정 민정중(閔鼎重) 우의정 이상진(李尙眞)이 연이어 억울하다고 입을 모으니 임금께서 판서공의 관작을 회복토록 명하셨다.

아아 공이 오늘날에 가히 눈을 감을 것이니 이 어찌 성효의 감탄이 아니겠는가!

나는 어린 나이 때 공을 先人の 구석자리에서 뵈을 당시 비록 볼 줄 몰랐으나 역시 공은 청명하고 개제(愷悌)²²⁾한 분으로 여겼는데 오늘날 공의 자제들의 청으로 인해 공의 銘을 쓰게 되어 당시를 추상하니 홀연 60여 성상이고 두 아버지의 묘역 구목(丘木)이 이미 아름답러가 되었으니 슬픈 눈물로 명사를 짓는다.

銘에 이르기를

옛적의 이른바 효는 명성이 과할 것 같으나 사실이 사실이 지나친들 사생은 오직

公 告

青松沈氏大宗會

第四十一回定期總會開催

二〇一一年度第四十一回定期總會를 다 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公事간에 多망하 실출 史料되오나 많이 參席하여 주시기 를 仰望하나이다.

◎ 다 음 ◎

◇ 日時 : 二〇一一年 四月 二十九日 (金 曜日) 오전十一時

◇ 場所 : 서울 중로구 명륜동(유림회관 三층)

◇ 電話 : (02)7741-677

◇ 會費 : 壹萬만원

◎ 부의안건 ◎

- 一. 二〇一〇年度 會務報告
- 一. 二〇一〇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決算 承認의 件
- 一. 二〇一一年度 事業計劃 承認의 件
- 一. 二〇一一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豫算(案) 承認의 件
- 一. 任員 改選의 件
- 一. 其他 宗務에 關한 事項

二〇一一年 四月 日

청송심씨대중회

會長 沈斗燮

◇ 연락처 : (02)2267-7857
※ 별도로 개인별 통지가 없아오니 유의하여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뿐. 그 성실이란 무엇이고, 남을 위해 용납하지 않는다.

오직 심공은 하늘이 주신 완호 일세. 아버이 원한 풀지 못해 눈물이 피가 되고 죽은 뒤에 이루어진들 뒤라서 힐난하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은 氣요, 장구한

것은 理이다. 효도가 이미 이와 같으니 충성이 어찌 이밖에 있으리오.

충효 이미 겸전하니 나머지는 미루어 가히 알지어다. 공에 대해 알고자 할진대 이보다 더한 징험(徵驗)은 없을 것이다.

領中樞府事 左議政 宋時烈 撰

주(註)

- ⑰ 소인묵객(騷人墨客) : 글 잘 하는 시인과 글씨 잘 쓰는 사람.
- ⑱ 화복(禍福) : 화와 복이니 여기서는 재와 흉로 쓰임.
- ⑲ 술인(術人) : 역술, 즉 음양학을 전공하는 사람.

⑳ 공경(公卿) :三公과 六卿, 즉 정승과 판서.

㉑ 금상(今上) : 현재의 임금. 上은 상감의 줄임말.

㉒ 개제(愷悌) : 근엄하고 공경의 대상자. 훌륭한 인물.

- 끝 -

왕비 소헌왕후(王妃 昭憲王后) 심씨-②

말썽 많은 자손들을 잘 다스린 심씨

후궁들에게 투기하지 않고 모든 자녀들에게도 인자하였던 심씨는 후덕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에게는 연이여 우환이 터졌다.

세자빈을 두 차례나 폐출시켜 내쫓게 된 아픔을 겪은데다가, 셋째 세자빈은 귀한 손자를 생산한 다음날 세상을 떠나 버렸고, 넷째 임영대군과 여덟째 영응대군(永膺大君)의 부인도 병 때문에 내쫓아야 했다. 이때는 병에 걸리는 것도 칠거지악에 해당되었던 것이다.

1427년 첫째 세자 향(晌)이 열네 살 되던 해, 세자보다 네 살 많은 김오문(金五文)의 딸을 세자빈으로 간택하였는데, 세자빈 김씨는 태종의 후궁인 명빈의 조카로서 왕가와도 인연이 있는 집안 출신이었으므로 심씨는 내심 무난하다고 안심했다.

그러나 세자 晌(훗날 문종)은 학문은 좋아했으나 여색은 그다지 즐기지 않았는지 부인김씨와 잘 어울리지 않았고, 오히려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낸 중전 심씨의 시비 효동·덕금을 더 가까이했다.

결국 세자빈 휘빈 김씨는 혼인 3년 만에 남편의 사랑을 되돌리겠다고 비방을 쓰게 되는데, 예컨대 좋아하는 여자의 신발 뒷굽을 잘라다가 불태워 술에 타 마시게 한 다든지, 봄에 교접하는 뱀을 잡아 가루를 내어 먹게 한다든지, 미초라는 풀을 먹고 자란 나비를 말려서 차고 다니기도 해 보고, 붉은 박쥐 가루를 써보기도 하는 등 세자빈의 체면도 망각한 채 세자 몰래 별별

민간 비방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세자의 사랑을 얻기 위한 이런 해괴한 짓들이 시어머니 심씨의 귀에 들어가, 세자빈 김씨는 국모의 자질이 없다는 이유로 폐출되었는데, 그녀가 색을 왕성히 밝혔다는 소문도 있었다.

김씨를 축출한지 이틀 만에 세종과 소헌왕후는 금혼령(禁婚令 : 세자·세손의 비를 간택하는 동안에 서민의 혼인을 금하던 일)을 내리고 3개월 만에 세자 향과 동갑이었던 봉여(奉礪)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 들였다. 세자 향은 휘빈 김씨가 축출된 것에 대해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봉씨에게는 애정을 가지려고 하였는데, 세자가 봉씨에게 미처 애정을 쏟기도 전에 예조(禮曹)에서 "세자도 후궁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도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여자들이 끼여들게 된 것이다.

1430년(세종12) 세자의 후궁을 정2품 양제, 정3품 양원, 정4품 승휘, 정5품 소훈 등으로 법제화했다. 세종과 소헌왕후는 며느리 김씨를 폐출시킨 바도 있고, 세자의 나이가 장성함에도 제대로 후사(後嗣 : 대를 잇는 아들)를 두지 못하게 되자, 동궁(東宮 : 왕세자)도 후궁을 들일 수 있도록 법제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세종은 권전(權專)의 딸(훗날 단종의 어머니, 현덕황후) 정갑손의 딸, 홍심의 딸을 세자의 후궁으로 봉했다.

세자는 새로 맞아들인 후궁들에게 마음이 쏠렸고, 반면 세자빈 봉씨는 즐지에 과부 아닌 독수공방 신세가 되었다. 그래도 혹시나 세자가 밤늦게라도 찾아올지 모른

다고 고대하며 긴긴 밤을 시비와 함께 뜰 눈으로 지새웠다. 봉씨는 내심 외쳤다.

‘여인을 맞이해 놓고 남자 역할을 못다 함은 여인에 대한 학대요, 고문이다!’

봉씨는 당당하고 당돌했다. 슬픔을 감추며 해괴한 비방을 썼다가 폐출당한 김씨와는 달랐다. 봉씨가 세자와 냉전 상태에 돌입했을 때 세종과 소헌왕후는 몇 차례 불러서 타일러 보았지만, 자부심이 대단했던 봉씨는 만만치 않았다.

그러던 차 봉씨는 시비와 묘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된다. 조선 왕실 최초의 레스비언(lesbian : 여성 간의 동성애) 스캔들, 즉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알게 된 봉씨는 저녁마다 시비들을 불러들여 주연을 베풀고 취흥에 따라 가무까지 즐기며 시름을 달랬다.

하지만 세자의 사랑을 두고 후궁들과 실력 대결을 하는 상황에서 봉씨의 이런 행동은 자기 무덤을 파는 짓이었다. 봉씨의 유희 소문은 마침내 세종과 소헌왕후에게까지 알려졌고, 한동안 망설이던 세종은 1437년(세종19) 마침내 두 번째 세자빈 봉씨를 폐출시켰다. 결국 봉씨는 동성연애자로 낙인이 찍혀 축출됐지만, 더 큰 축출이유는 후손을 생산치 못한 탓일 것이다. 이른바 유교적 칠거지악인 자녀를 생산 못한 죄목이었다.

봉씨의 동성연애가 발각됨에 따라서 다른 궁녀들의 동성연애도 탄로가 났다. 그러나 굶주린 자에게는 대신 먹을 거리가 필요했다. 썩 대신 닭 이라고 했던가. 당시 궁녀들 사이에는 ‘대식(對食)’이라 하여 동성연애가 성행했다. 궁녀들은 통상 한 방에 소속이 다른 두 여인들이 함께 거처하였는데, 이들은 서로 ‘방 동무’라 부르며 엉덩이에 ‘봉(朋 : 벗)’이라는 글자나 남근상(男根像)을 문신하고는 동성연애를 즐겼다고 전해진다.

특히 임금에게 승은(承恩 : 임금의 총애를 받아 밤에 모시는 것)을 입지 못한 궁녀들은 ‘희망이 절벽’인 궁궐 생활에서 이런 식으로라도 원초적 본능을 달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세종은 동성연애 궁녀들에게 70대 또는 100대의 곤장을 치는 벌을 내리기도 했지만 근절되지 않자《삼강행실도》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궁녀들의 간헐 생활 양식이 마구 분출하는 본능을 정상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미봉책일 수밖에 없었다. ‘인간의 본능’을 인위적으로 강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쩌면 권력 계층은 자기들 맘대로 여자를 즐기면서 궁녀들의 본능을 단속하는 것은 공평치 못한 횡포요, 아이러니인 셈이었다.

세종과 소헌왕후가 맞아들인 세자 향(晌)의 후궁들 중에 세자빈으로 승격된 권씨는 두 명의 공주를 낳은 뒤 1441년(세종23) 7월 드디어 왕세손을 생산했다. 폐출시킨 첫 세자빈 김씨와 혼인한 지 14여 년, 역시 폐출된 둘째 부인 봉씨를 거친 후, 권씨와의 사이에서 늦게나마 세자가 아들을 얻게 되자 세종은 왕세손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대사면령(大赦免令)을 즉시 내렸다. 그러나 교지(敎旨)를 다 읽자마자 공교롭게도 전상(殿上)을 밝히던 촉대(燭臺)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

“이 무슨 해괴한 징조인가?”
그 다음날 세자빈 권씨는 산후 조리를 잘못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때 태어난 아이가 ‘비운의 임금 단종(端宗)’이며 죽은 권씨는 9년 후인 1450년 세자 珣(훗날 문종)이 즉위한 뒤 현덕왕후(顯德王后)로 추존되었다.

- 왕후열전에서 -

<다음호에 계속>

公 告

靑松沈氏仁壽府尹公派宗會

二〇一一年度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忘世亭公春享節祀奉行日에 開催합니다.

◇ 春享日時 : 二〇一一年 四月二十五日 (陰三月二十三日) 十一時

◇ 總會日時 : 二〇一一年 四月二十五日 (陰三月二十三日) 十二時

◇ 總會場所 : 南楊州市 梧南邑 陽地里 忘世亭公墓域下

◇ 電話 : (〇二) 四〇一 七三七七

一 · 會務報告

二 · 監查報告
三 · 二〇一〇年度 特別會計收入支出 決算報告承認의件

四 · 二〇一〇年度 一般會計收入支出 決算報告承認의件

五 · 二〇一一年度 事業計劃(案)承認의件

六 · 二〇一一年度 特別會計收入支出 豫算(案)承認의件

七 · 二〇一一年度 一般會計收入支出 豫算(案)承認의件

八 · 其他 宗務에 關한 事項

二〇一一年 四月 日

靑松沈氏仁壽府尹公派宗會

會長 沈 晶 求

남도 제일의 의병지장 심남일(沈南一)의 구국충절 - 1

1871년 2월 10일[高麗末 절신 돈재 계년(繼年)의 후 사요, 둔운처사 의봉(宜奉)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의병장 심수택(沈守澤) 字는 덕홍(德弘) 號는 남일(南一)이다. 때는 1895년 왜놈들의 손에 왕후민비께서 시해되자 남일은 가슴을 치며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까 비분강개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을사매국조약이 이루어지고 고종황제를 폐위시키고 말았다. 1907년 11월 南一은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에 가담하여 기삼연 휘하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08년 2월 기삼연 김태원 김을 등 수뇌부들이 순국하자 남일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우리 땅을 사수하겠다는 각오로 각郡 향교 면 보조원 등에 격문을 붙이고 신하란 임금의 팔다리요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다. 왜놈들의 미친 화는 옛날 임진년에는 우리백성에게만 미쳤지만 오늘날의 화는 국모를 시해하고 우리 재정을 빼앗고 정치의 법령이 모두 왜놈들의 손아귀에 들었으니 우리인생이 허공에 턱을 걸고 사는 것이 안일인데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으니 우리 팔도사람들은 다 같이 풍파를 만난 배를 탄 신세인즉 고래 떼 같은 왜놈들에게 잡혀먹기 전에 서로 힘을 모아 분발한다면 우리 강토가 회복되고 각자의 본심을 일으켜 함께 큰일을 치뤄나간다면 천하만국이 또한 반드시 바람소리 들고 호응하게 될 것이다.

호남곳곳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온 수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조국을 위해 몸 바칠 각오를 단단히 한 의병들이 700명이나 모여들었다. 군량미와 무기를 확보하여 함평 신광원 산덕동에서 훈련하며 "나를 따라서 조국과 겨레를 지키자고" 외치시었다. 1908년 3월 7일 부하들에게 모두 들어라 오늘 강진 쪽으로 백의종군하여 싸우러 간다. 마음을 단단히 하고 내 뒤를 따르도록 해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오늘이야말로 이 나라의 철천지원수인 왜놈들을 만나 우리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구국의 한을 풀 수 있겠구나...

한 놈도 남김없이 전부 섬멸하라고 하고 17시간이나 쉬지 않고 계속 되었다. 왜군 몇 놈들은 막심한 피해를 입고 아수라장속에서 도망갔다. 이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 강진전투에서 南一은 인간적인 고뇌가 잘 드러나는 전투였다.

1908년 4월 15일 우리 백성들을 못살게 군다는 소식을 접하고 장흥 관동으로 진군했다.

강진 오치동 전투에서 자신을 얻

었고 최신식 무기인 포를 뺏았기 때문에 마음 더욱 든든하였다. 왜병들이 달려오자 굉하는 소리와 함께 왜병 몇 놈이 나자빠지고 몇 놈들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갔다.

일격에 승리하여 만세를 부르며 의병들은 서로 열차안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다. 1908년 6월 19일 남평 전투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 포 소리와 함께 60여명의 왜병들의 포탄세례를 받게 되었다. 네놈들이 가지고 온 포탄을 맞아보니 맛이 어떠한? 이 싸움에서 전무후무한 전투였다. 하늘이 도와준 것이다. 1908년 6월 25일 남평 관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고개를 넘어 오는 왜놈들을 탕탕 8명의 왜놈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 두필과 무기를 빼앗고 의병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1908년 7월 30일 영암사촌에 왜장 금평산대장이 기병 20명과 쏘살같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 탕탕 금평산대장과 기병들은 혼비백산하여 어쩔 줄 몰랐으며 힘이 없어 고꾸라지고 땀겨울었으며 남일의 의병들은 용기백배하여 왜놈들의 가슴에 찬 물을 끼얹었습니다. 대장 금평산 유품 훈장에 쓰여 있기를 관구어수호육국(管久御守護六國)이라 쓰여 있어서 六國이란 무엇인가 했더니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태풍과 폭우가 쏟아졌다.

1908년 9월 20일 나주반치 장흥신평 해남성남 능주 석정 남평거성동 능주풍치 보성웅치 보성천동..전투에서도 혁혁한 승리를 했다. 일제는 1908년 후반부터 南一을 체포하는데 혈안이 되어 11개 부대를 투입했다. 1909년 4월 2일 보성 석호산 전투에서 고종임금의 조서를 받고 남일의 손은 파르르 떨렸고 두 눈에서는 뜨거운 두 줄기 눈물이 흘러 내렸다. 삼강마마!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이토록 분하고 억울한 일이 세상에 또 있습니까? 오로지 저희들은 이 땅위에 조상들의 원수요



남일 심수택 의병장 사당, 기념관, 체험관

부모형제의 원수인 왜놈들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도 아깝게 생각지 않고 오늘날까지 싸워왔는데 해산하라니 이 웬 날벼락입니까? 통곡하는 南一의 주위에 의병들이 모두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석호산 정상은 온통 울음바다로 변해버렸다. 남일의 말마져 고개를 쳐들고 의병들의 얼굴에 핏기조차 사라진 모습이었고 간담이 타고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孫子 沈晚燮

<다음호에 계속>

종인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올 겨울 끔찍 얼어 붙었던 대지 위에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 만물이 약동하는 요즈음 종친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청송심씨 금호종중문화 총무를 맡고 있는 심옥섭입니다. 남일 심수택 의병장님의 손자 만섭씨가 저희 종중문화 회원인데요 남일 심수택 의병장 기념관을 건립하면서 기념관 부지는 만섭씨가 모두 기증하여 기념관, 삼문, 화장실, 동상, 영정은 먼저 건립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당, 체험관, 관리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고, 도로 포장 공사는 함평군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확장되는 지주들의 토지 보상금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기념관이 건립되면 기념관까지 버스길이 터져야 되므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1차 사업만 끝내 놓고 2차 사업인 사당 매입대 1,000만원, 체험관 매입대 2,000만원, 관리실 매입대 1,500만원, 도로 확장 토지보상비 1,500만원이 소요된답니다.

사당 체험관 관리실 매입대금까지는 어렵게 마련되었는데 기념관에서 국도로 나가는 도로폭이 3미터인데 5미터로 400미터 도로로 확장하는 토지보상비 1,500만원이 부족되어 지주들과 협의만 해놓고 추진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금호종중에서도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으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평군에서 포장공사는 해준다고 하는데 토지보상비 때문에 도로 확 포장을 못한다면 두고두고 한이 남을 것 같아 생각 타 못해 대종회에 보고드리면서 대종회의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청송심씨 남일 심수택 의병장님은 우리 청송심씨 가문의 자람이며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이 도로공사만 완료되면 기념관 완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남일 심수택의병장님의 기념관이 빠른 시일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청송심씨 대종회에서 살려주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회장님의 건승을 빕니다.

2011년 3월 16일

光州 금호종중문화

계좌번호(국민은행) 558-01-0226-841 심옥섭(금호종중)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2동 821-7

• 전화 : 062-942-3456 휴대폰 : 010-3602-3236

청송심씨 금호종중문화

회장 심상기 총무 심옥섭 올림

◆ 2011년 春季 時享日表 ◆

世	휘(諱)	陽曆	曜日	陰曆	所在地	世	휘(諱)	陽曆	曜日	陰曆	所在地
始祖	文林郎公(휘: 洪孚)	4월 6일	水	寒食	靑松邑 덕리 보광산	六	良惠公(휘: 石鶴)	4월 22일	金	3월 20일	龍仁市 포곡읍 동막리
	中臺山所	4월 6일	水	寒食	靑松邑 부곡리 중대산	六	恭肅公(휘: 澹)	4월 6일	水	寒食	坡州市 월릉면 영태리
二	閣門祗候公(휘: 淵)	4월 13일	水	3월 11일	咸悅邑 남당리 남당산	七	忘世亭公(휘: 璿)	4월 25일	月	3월 23일	南楊州市 오남읍 양지리
三	靑華府院君(휘: 龍)	4월 15일	金	3월 13일	安城市 당왕동 산19	王后	昭憲王后	4월 28일	木曜日		驪州郡 능서면 英陵
三	配位 金氏	4월 15일	金	3월 13일	安城市 도기동 산64		仁順王后	4월 24일	4월 넷째 일요일		노원 공릉동(康陵)
四	靑城伯(휘: 德符)	4월 17일	日	3월 15일	漣川 미산면 아미리 110		端懿王后	3월 27일	3월 넷째 일요일		구리시(동구릉 內) 惠陵
四	配位 淸州宋氏	4월 19일	火	3월 17일	淸州市 분평동 산8		淑容沈氏	4월 17일	4월 셋째 일요일		은평구 진관외동
四	岳隱公(휘: 元符)	4월 27일	水	3월 25일	靑松郡 파천면 덕천 景義齊		世宗大王	4월 8일	金曜日		驪州郡 능서면 英陵
五	安孝公(휘: 溫)	4월 6일	水	寒食	水原市 영동구 이의동		宗廟大祭	5월 1일	5월 첫째 일요일		종로구 종로3가 宗廟
五	三韓國大夫人	4월 16일	土	3월 14일	安城市 금광면 오흥리 능말						

조선조의 문무(文武)관직에 대한 상식

■ 시호문자(諡號文字)의 정의

시호(諡號)를 정하는 법으로는 주공시법(周公諡法)이니 춘추시법(春秋諡法)이니 하여 중국고대(中國古代) 이래의 시법(諡法)이 많이 적용되었던 듯하다. 시법(諡法)에 사용된 글자는 문(文) 충(忠)·정(貞)·공(恭)·양(襄)·정(靖)·효(孝)·장(莊)·안(安)·경(景)·익(翼)·무(武)·경(敬) 등 120자인데 기재된 13자를 제일 많이 썼다. 한자 한자마다 정의(定議)가 있어서 생전의 행적(行蹟)에 알맞은 글자를 조합하여 두자로 만들고 시호(諡號)아래 공(公)자를 붙여 만든다.

시호(諡號)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서 존중되어 세보(世譜)에는 물론 묘갈(墓碣)같은 데도 기입되었다. 따라서 어떤 시호(諡號)를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자손과 일족(一族)의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시호(諡號)의 글자를 둘러싸고 시비와 논란이 많았으며, 뒷날에 개호(改號)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문(文)자와 충(忠)자가 들어간 시호(諡號)를 가장 존귀하게 여겼는데, 특히 숭문주의(崇文主義)로 인한 문반우위(文班優位)의 시대였던 만큼 문(文)자 시호(諡號)를 최고의 영예로 여겨 자손들이 이를 자랑으로 삼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다.

■ 유현(儒賢)들의 시호(諡號)

임금의 특별한 교시(敎示)가 있을 때는 자손의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않고 홍문관(弘文館)과 봉상시(奉常寺)에서 직접 시호(諡號)를 의정(議定)했는데, 이는 퇴계(退溪) 이황(李滉)에게 문순(文純)이란 시호를 내려준 데서 비롯되었다. 정2품 벼슬이 못되었으면서 시호(諡號)를 추증 받는 유현(儒賢)으로는 김광필 문경공(金宏弼 文敬公), 정여창 문헌공(鄭汝昌 文獻公), 서경덕 문강공(徐敬德 文康公), 조광조 문정공(趙光祖 文正公), 김장생 문원공(金長生 文元公) 등이 있다.

■ 무인(武人)의 시호(諡號)

무인(武人)의 시호(諡號)로는 충무(忠武)가 가장 영예로운 직이며 특히 충무공(忠武公) 하면 이순신(李舜臣)장군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지만 그 밖에도 조영무(趙英茂), 남이(南怡), 이준(李濬), 구성군(龜城君), 정충신(鄭忠信), 김시민(金時敏), 이수일(李守一), 구인후(具仁厚) 등 8명이나 더 있다.

■ 문반(文班)의 내외 직(內外 職)

문반(文班)의 벼슬자리는 크게 내직(內職)과 외직(外職)으로 구분된다. 내직(內職)은 중앙 각 관아의 벼슬인 경관직(京官職)을 말하고 외직(外職)은 관찰사(觀察使), 부윤

(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현령(縣令), 판관(判官), 현감(縣監), 참방(察訪) 등 지방관직을 말한다. 내직(內職)에서는 옥당(玉堂)과 대간(臺諫) 벼슬을 으뜸으로 여겼다.

옥당(玉堂)은 홍문관(弘文館)의 별칭이며, 부제학(副提學)이하 응교(應教), 교리(敎理), 부교리(副敎理), 수찬(修撰) 등의 관원이 있다.

대간(臺諫)은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합칭인데, 사헌부(司憲府)에는 대사헌(大司憲), 집의(執義), 장령(掌令), 지평(持平), 감찰(監察)이 있고, 사간원(司諫院)에는 대사간(大司諫), 사간(司諫), 헌납(獻納), 정언(正言) 등의 관원이 있다.

홍문관(弘文館),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을 삼사(三司)라 했는데, 삼사(三司)의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삼사(三司)의 직위는 흔히 청 요직(淸要職)이라 하여 명예스럽게 여겼다. 따라서 삼사(三司)는 사림열력(士林熱力)의 온상이 되기가 일쑤여서 조정의 훈신(勳臣)들과 자주 알력을 일으킴으로써 당쟁(黨爭)을 격화시키는 한 원인을 이루는 등 역기능(逆機能)을 빚기도 했다.

■ 호당(湖堂)

족보(族譜)를 보면 높은 벼슬을 지낸 문신(文臣)중에는 호당(湖堂)을 거친 이가 많이 눈에 뜨인다. 호당(湖堂)이란 독서당(讀書堂)의 별칭으로 세종(世宗)때 젊고 유능한 문신(文臣)을 뽑아 이들에게 은가(恩暇)를 주어 독서(공부)에 전념하게 한데서 비롯된 제도이다. 이를 사가독서(賜暇讀書)라고 하여 문신(文臣)의 명예로 여겼으며 출세 길도 빨랐다.

■ 문형(文衡)

문과(文科)를 거친 문신(文臣)이라도 반드시 호당(湖堂) 출신이라야만 문형(文衡)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문형(文衡)이란 대제학(大提學)의 별칭인데, 문형(文衡)의 칭호를 얻으려면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과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그리고 성균관(成均館)의 대사성(大司成) 또는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를 겸직해야만 했다.

문형(文衡)은 이들 삼관(三館)의 최고 책임자로서 관학계(官學界)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직(職)이므로 더할 수 없는 명예로 여겼다. 품계(品階)는 비록 판서급(判書級)인 정이품(正二品)이었지만 명예로는 삼공(三公) 3정승(政丞)육경(六卿)육조판서(六曹判書)보다 윗길로 쳤다.

뿌리文化保存會에서 전재

譜事관련 두 가지 以上의 音을 가진 漢字

字	訓	音	用 例
沈	성	씨	심씨(沈氏)
	잠	길	침맥(沈脈)
行	항	렬	항렬(行列)
	다	닐	행로(行路)
降	내	릴	강우량(降雨量)
	항	복	항복(降伏)
參	석		삼만(參萬)
	참	여	참석(參席)
更	다	시	갱생(更生)
	고	칠	경장(更張)
狀	형	상	상태(狀態)
	문	서	상장(賞狀)
見	불		견문(見聞)
	드	러	현치(見齒)
塞	변	방	요새(要塞)
	막	을	색원(塞源)
索	찾	을	사색(思索)
	쓸	쓸	삭막(索莫)
句	글	귀	구관(句管)
	구	절	귀절(句節)
龜	땅	이	구포(龜浦)
	거	북	귀감(龜鑑)
說	터	진	균열(龜裂)
	말	씀	설명(說明)
	달	랠	유세(遊說)
金	기	빨	열호(說乎)
	쇠	금	금속(金屬)
省	성	김	김씨(金氏)
	살	필	반성(反省)
矜	덜	생	생략(省略)
	자	랑	금지(矜持)
矜	홀	아	환과(矜寡)
	환	과	

남한산성 공원의 돌에 새겨진 詩碑

노송기암이 구름에 쌓여있는 곳
지령(地靈)의 힘으로 千年을 지켜 왔어라
뒷날 한가로이 잠잘 곳을 찾는다면
가을 물 서늘한 옥천(玉泉亭)일세

沈 象 奎 (1766~1838)
朝鮮後期 文臣(領議政)

大同世譜(庚辰譜) 申請案内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경진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 12권(수권, 자손록 10권, 색인 1권)
- ◆ 보급가격 : 22만원(별도구입시 수권 : 40,000원)
- ◆ 송금구좌 : 농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중회)
-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중회(02-2267-7857, 팩스 :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입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shim.or.kr)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대동세보 수권 속편(靑松沈氏世考選, 祭享笏記, 宗보축쇄판, 手帖, 뺏지 포함) : 100,000원

『책자 강매』 주의


대중회를 사칭하면서 책자 구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책자를 보내오면 대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반송하시기 바라며, 다른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회에서는

대동세보(경진보 : 22만원)와 대동세보 수권속편(10만원) 외는 보급하는 책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人事

상범 : 2010최우수 애널리스트 선정 [파생상품부문(대우)]
 상식 : 효성 전무
 재판 :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부 팀장
 상구 : 신한은행 일산 탄현 지점장
 무경 :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학진 : 성남지청 검사
 동희 : 전주대 산학협력단장
 재식 : KT&G 천안공장부서장
 정근 : 농수산물유통공사 홍보팀장
 방섭 : 농수산물유통공사 설계총괄부장
 광주 : 농수산물유통공사 박물관 운영부장
 종래 : 농수산물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형석 : 농수산물유통공사 김포사업본부
 윤수 : SH공사(1급 승진) 보상3팀장
 범준 : SH공사(1급 승진) 창의혁신팀장
 경섭 : 한화그룹 부회장
 준보 : 서울 행정법원 부장판사
 태규 : 강릉지원 지원장
 준보 : 대전지법
 규홍 : 사법연수원 교수
 연수 : 대법원 재판 연구관
 현욱 : 부산고법 판사
 규찬 : 서울 지방법원
 영진 : 서울 지방법원
 병직 : 서울 지방법원
 沈관 : 광주지법
 재현 : 광주지법
 沈경 : 법원행정처 인사 제1심익관
 활섭 : 서울고법 부장판사
 경우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흥철 : MBC경인지원본부 신사옥 건설부장
 태섭 : 서울시립대학 자유전공학부부장
 영식 : KB국민카드 부산지점 팀장
 홍식 : 미래에셋증권 운용채권상품 팀장
 揆男 : 청주교육대학 영문학 교수
 阮燮 : IBK투자증권 SM위원



2世祖 閣門祗侯公
南堂山所 有司(新任)
 沈 正 秀

訃 告

沈吉燮(修撰公派宗會長)님의 配(陽川許氏)께서
 2011년 3월 14일 宿患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아들 : 載彰 載晟 載昇
 딸 : 志妍

任 員 會 費

載晃 監事	2011	200,000	김포
良燮	2011	50,000	봉천동
洪燮	2011	50,000	수유동
勳輔	2011	50,000	소사동
鍾洪	2011	50,000	김포
載勳	2011	50,000	춘천
晞燮	2011	50,000	수원
相龍	2011	50,000	수원
相億	2011	50,000	제기동
載澈	2011	50,000	익산
相泳	2011	50,000	진주
東燮	2011	50,000	일산
永澤	2011	50,000	일산
載緒	2011	50,000	일산
載烈	2011	50,000	일산
完輔	2011	50,000	잠실
正燮	2011	50,000	전주
斗燮	2011	50,000	서산
泓植	2011	50,000	삼척
茂植	2011	50,000	전주
載政	2011	50,000	광주
鍾德	2011	50,000	과천
仁求	2011	50,000	춘천
仁燮	2011	50,000	양평
明燮	2011	50,000	전주
鍾根	2011	50,000	안동
鍾奎	2011	50,000	안동
載德	2011	50,000	안동

宗 報 贊 助

龜尾宗會	300,000	일산
釜山 靑松會	100,000	
相奉 美國	109,400	
法串宗中	400,000	
金浦 하성중회	200,000	
信川公派 春川宗會	100,000	
廷江公 馬山宗會	300,000	
完求 副會長	100,000	
相汶 春川信川公派회장	100,000	
彦村	100,000	수원
龍植 釜山靑松會 회장	50,000	
有燮	100,000	망우웨딩홀
載勳	100,000	김포
정일	100,000	공덕동
揆衡	100,000	인천
봉학	30,000	부산
우학	50,000	삼척
극택	50,000	행신
상원	30,000	강화
민섭	50,000	석관동
相慶	50,000	김포
화복	50,000	밀양
기천	20,000	분당
茂燮	30,000	대구
성길	50,000	도봉
흥보	50,000	인천
경보	50,000	영양
載德	100,000	안동



慶北道議員 當選

龜尾宗會 沈鈺圭 顧問

의학박사 취득

沈朱燮(大宗會 副會長 相和님의 長男) 35세 경희대학교(의과대학 이비인후과) 2011년 2월 16일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5차산소 유사 연락처

세	관 직	소재	유사	전화번호
시 조	문림랑공	청 송	能 光	010-9236-2331
			琬澤	011-9374-4166
2 세조	합문지후공	합 열	正 秀	010-8311-6429
3 세조	청화부원군	안 성	光 澤	011-732-5768
4 세조	청성백	연 천	良 燮	011-728-2104
4세조비	청주송씨	청 주	成 輔	019-480-9994

靑 松	청송심씨 찬경회관	054-874-3400
	館長 載 洪	018-505-7611
	악은공종회 총무 相七	010-9776-7170
淸 州	청 주 회 관	043-286-7857
大 田	뿌리공원 안내 玄根	011-429-6760

송금안내

任員會費·贊助金·宗報贊助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중회)

인터넷 족보 수단금 송금안내

· 농 협
 301-0019-5484-91 (청송심씨대중회)

수단(收單)은 우편, 팩스(2269-7755) 또는 이메일 : cshimssi@kornet.net로 보내주시고 수단금은 상기 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문의전화 : (02)2267-7857

靑華府院君宗中 安城宗會 任員改選

常任顧問	庚周
會長	光澤
副會長	錫圭 一用
監事	政燮 相敦
總務理事	虎燮
理事	貞澤 載銀 裕良 相旭 相烈 相明 相薰 薰澤 善求 延輔 鳳來

修撰公派 宗會 任員名單

顧問	達燮(鎰) 相勳(鎰)
會長	吉燮(鎰)
副會長	種澤(鎰) 昌燮(鎰) 仲根(鎰)
監事	峯燮(鎰)
總務理事	炯甲(鎰)
理事	明澤(鎰) 周澤(鎰) 左輔(鎰) 載春(鎰) 炯燦(鎰) 玄根(鎰) 載天(鎰) 南燮(鎰) 昌燮(鎰)

釜山靑松會 任員名單

顧問	相均 相局 海燮 日鎮 且燮 龍輔
名譽會長	仁輔
會長	龍植
副會長	秀輔 敬道 載德 載榮 萬仁
總務理事	泰燮
副總務理事	鍾泰
監事	文燮 金培
幹事	文惠(딸대표)